

“화순 반려동물 해수욕장 사업 재검토해야”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철거해야” 박진경 연대장 명예회복 위한 도민모임 주장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서 “생태복원” 촉구
“생물 구조·콘크리트 제거... 생물다양성 복원 모범 사례로”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화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복원 방향을 제안하고 나섰다.

도내 21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용천수 하천의 생태 훼손 중단과 생태계 복원·공익 공간으로의 전환

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 사업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자연 스스로 치유하고 복원해 온 습지 생태계를 콘크리트로 무참히 매립한 ‘생태학살’이라며 “화순 용천수 수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제주 특유의 기수(汽水) 환경을 구축한 생태계의 보물창고”라고 주장했다.

또 “화순항 개발과정에서 인공 수로로 전환되며 1차 훼손이 발생

했지만 하천은 이후 스스로 ‘재습지화’를 하며 퇴적물이 쌓이고 갈대가 군락을 이뤘다”며 “서귀포시는 이 자가복원습지를 해수욕장 활성화를 이유로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매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공사 즉각 중단 및 콘크리트 매립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복원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임형목 해양시민과학센터 과관 전문위원(다큐멘터리 감독)은 “서귀포시의 주장처럼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은어와 기수갈고둥이 서식할 수 있으나 생태계는 단일 종

증가가 아닌 다양한 생물 간 상호작용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매립된 수로에 서식하며 이동성이 극히 낮은 생물인 ‘버들치’와 ‘파랑밀어’를 구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과 아열대에 서식하는 희귀종인 ‘진주갈고둥’의 개체 수를 기록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전 구간별 생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로 내 풍부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각에 가까운 수로의 굴곡을 완만하게 재설계하고 갈대 섬과 모래사장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극적으로는 해당 수로를 반려동물 해수욕장이 아닌 공익 생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태학습장을 설치하고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개설해 마을 수익과 연계하는 식이다. 이로써 인공 공간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한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위성곤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용천수 하천의 생태 훼손 중단과 생태계 복원·공익 공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귀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4·3 당시 도민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거론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과거 행적을 정부 공식 보고서를 토대로 기술한 안내판에 대해 ‘박진경 연대장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도민모임’이 18일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철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연대장 위령비 옆에 세워진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에 대한 분석과 재평가를 바탕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 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후대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주시 이승생 한울누리 공원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박 대령 추모비 바로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내판에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4·3을 촉발한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 시대 상황과 함께 박 대령이 제주 부임 후 약 40일간의 행적, 부하에게 암살 당한 사실이 등이 서술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호소문에서 “박 대령 추모비 옆에 세워진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이름의 안내판 속에 채워진 내용은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29세 청년 군인의 명예를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현대판 부관참시’이자 또 다른 역사 폭력일뿐”이라며 안내판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록에 의하면 박 연대장이 제주도 재임기간 중 국방경비대의 작전으로 희생된 사람은 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부역 변호사와 암살범의 거짓 주장을 인용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기의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청년 군인 또한 4·3의 아픈 희생자임을 인정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호소문은 박기남 전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이 낭독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서귀포시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 효과봤다

1억 투입 올해 첫 시도... 자원 절약·탄소 7.1t 감량
40년생 소나무숲 1ha 연간 감축량과 같은 성과 거둬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자원 절약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는 물론 탄소 감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3월부터 1억원(국비 70%, 도비 30%)을 투입해 추진 중인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통해 20개 행사에 다회용기 25만8000여 개를 지원, 탄소 약 7.1t을 감축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탄소 감축량은 1ha 규모의 40년생 소나무숲 연간 탄소 감축량(7.2t)과 맞먹는다. 일회용기 생산·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다회용기 세척 시 배출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사업자는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축제다.

식사나 음료 제공 시 필요한 다회용기(그릇, 수저, 컵 등) 대여와 회수, 전문 세척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성산읍부녀회가 주관한 알뜰장터를 시작으로 서귀포 유채꽃축제,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제60회 도민제전 등 20개 행사·축제에 다회용기가 지원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가을철 주요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이달 25일 2차 주민설명회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한 중간 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남은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7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탐동광장·산지천 전망대 새 단장

농구코트 바닥 전면 교체 로고젝터 설치로 볼거리도

제주시가 여름철 도심 속 대표적 휴식공간인 탐동광장과 산지천 전망대를 새 단장한다.

시가 최근 탐동광장 농구코트 바닥 전면 교체와 산지천 산포광장 전망대에 로고젝터 설치 등 대대적인 시설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로고젝터는 빛을 이용해 바닥·벽면 등에 이미지나 문구를 투사하는 장치다.

시는 1억4500만원을 투입해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체육시설인 탐동광장 농구코트 5면에 대한 바닥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1200만원을 들여 산지천 산포광장 전망대에 고해상도 로고



제주시 탐동광장 농구코트. 제주시 제공

젝터를 새롭게 입혔다. 바닥에 ‘달과 별’ 형상의 감성적인 빛을 연출해 이색적인 야간 경관을 선사하는 한편, 어두웠던 사각지대의 조도를 높여 밤길 보행 안전까지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한 관광 환경 유지를 위해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탐동광장과 테마거리 일원에 서 질서계도판을 운영 중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